

2023 역사문학 기행

주제 : ‘가람의 시조와 채만식의 소설’ 세계를 읽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찾아 역사의식을 바로 세운다

1. 목적

시조 시인 가람 이병기, 소설가 채만식의 문학관을 찾아 작가의 발자취와 작품의 깊은 맛을 느끼며,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찾아 우리의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 기회를 갖는다.

2. 일시: 2023년 5월 13일(토요일) 08:30~16:30

3. 장소: 여산 가람 문학관, 군산 채만식 문학관, 근대역사박물관 및 근대 역사 지구

4. 여정: 학교 → 가람 문학관 → 채만식 문학관 → 점심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 귀교

5. 일정

시 간	활동 내용
08:30 - 08:40	학교 주차장 집합, 인원 점검
08:40 - 09:30	가람 문학관 이동, 교통안전주의
09:30 - 10:30	가람 문학관 관람 및 해설 듣기
10:30 - 11:00	채만식 문학관 이동, 교통안전주의
11:00 - 12:00	채만식 문학관 관람 및 해설 듣기
12:30 - 13:30	점심 식사
13:30 - 13:50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이동
13:50 - 15:30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및 주변 돌아보기
15:40 - 16:30	학교로 출발 및 도착

6. 활동 계획

가. 사전 활동(네이버폼 제출)

- 1) 가람 이병기의 작품을 선택하여 읽고 작품 속에 나타난 작가의 정신 찾기
- 2) 채만식의 작품을 선택하여 읽고 작품 속에 나타난 작가 정신과 시대 정신 찾기
- 3) 군산의 개항 이후 변화 모습으로 근대 건축, 철도, 농업과 자본주의 경제 탐구하기
- 4)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군산과 전북이 어떤 역사와 의미를 가진 지역인지 고민하기

나. 참가 활동(활동지 기록)

- 1) 문학관 탐방
- 2)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 및 근대 역사 지구 탐방
- 3) 작가의 삶과 시대 상황을 연결해 생각하고, 일제 강점기 역사적 맥락에서 탐구하기

다. 사후활동(네이버폼)

- 1) 활동지 작성하여 제출하기
- 2)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세부능력 정리하기

2023 문학기행 활동지

- 난초의 시인 가람 이병기 -

▷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 1891~1968)의 생애와 활동사항



1898년부터 고향의 사숙에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당대 중국의 사상가 량치차오[梁啓超]의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을 읽고 신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한다. 1910년 전주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13년 관립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재학중인 1912년 조선어강습원에서 주시경(周時經)으로부터 조선어문법을 배웠다.

1913년부터 남양(南陽)·전주제2·여산(礪山) 등의 공립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때부터 국어국문학 및 국사에 관한 문헌을 수집하는 한편, 시조를 중심으로 시가문학을 연구, 창작하였다. 당시 수집한 서책은 뒷날 방대한 장서를 이루었는데, 말년에 서울대학교에 기증하여 중앙도서관에 ‘가람문고’가 설치되었다.

1921년 권덕규(權惠奎)·임경재(任暻宰) 등과 함께 조선어문연구회를 발기, 조직하여 간사의 일을 보았다. 1922년부터 동광고등보통학교·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시조에 뜻을 두고, 1926년 ‘시조회(時調會)’를 발기하였다.

1928년 이를 ‘가요연구회(歌謠研究會)’로 개칭하여 조직을 확장하면서 시조 혁신을 제창하는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1930년 조선어철자법 제정위원이 되었고, 연희전문학교·보성전문학교의 강사를 겸하면서 조선문학을 강의하다가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한때 귀향하였다가 광복이 되자 상경하여 군정청 편수관을 지냈다.

1946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 및 각 대학 강사로 동분서주하였다. 6·25를 만나 1951년부터 전라북도 전시연합대학 교수, 전북대학교 문리대학장을 지내다 1956년 정년퇴임하였다. 1957년 학술원 추천회원을 거쳐 1960년 학술원 임명회원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 제자복·화초복·술복이 있는 ‘삼복지인(三福之人)’이라고 자처할 만큼 술과 시와 제자를 사랑한 훈훈한 인간미의 소유자였다. 그가 처음으로 문학작품을 활자화한 것은 1920년 9월 『공제(共濟)』 1호에 발표한 「수레 뒤에서」 이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산문시와 같은 것이었다. 그가 시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시조부흥론이 일기 시작한 1924년 무렵부터였다. 이 시기의 그의 시조는 다분히 옛 것을 본받고 있었다. 그가 시조 혁신에 자각을 가지게 된 것은 1926년 무렵이었다. 「시조란 무엇인가」(동아일보, 1926.11.24.~12.13.)·「율격(律格)과 시조」(동아일보, 1928.11.28.~12.1.)·「시조원류론(時調源流論)」(新生, 1929.1.~5.)·「시조는 창(唱)이나 작(作)이나」(新民, 1930.1.)·「시조는 혁신하자」(동아일보, 1932.1.23.~2.4.)·「시조의 발생과 가곡과의 구분」(진단학보, 1934.11.) 등 20여 편의 시조론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시조 혁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념비적 논문은 「시조는 혁신하자」였다. 이 무렵 『동아일보』의 시조모집 '고선(考選)'을 통하여 신인지도에 힘썼고, 1939년부터는 『문장(文章)』에 조남령(曹南嶺)·오신혜(吳信惠)·김상옥(金相沃)·장응두(張應斗)·이호우(李鎬雨) 등 우수한 신인들을 추천하여 시조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는 시조와 현대시를 동질로 보고 시조창(時調唱)으로부터의 분리, 시어의 조탁과 관념의 형상화, 연작(連作) 등을 주장하여 시조 혁신을 선도하면서 그 이론을 실천하여 1939년 『가람시조집(嘉藍時調集)』(문장사)을 출간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그의 전기 시조들은 「난초」로 대표되는 자연 관조와 「젖」에 나타난 인정물 등 순수서정 일변도였다. 그 뒤 옥중작인 「홍원저조(洪原低調)」 등에서 사회성이 다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의 후기 작품은 6·25의 격동을 겪으면서 시작되어 사회적 관심이 더욱 뚜렷해졌다. 「탱자울」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은 비리의 고발, 권력의 횡포에 대한 저항이 후기의 특징으로 꼽히는데, 이것은 현대 시조의 새로운 일면을 개척한 것이었다. 그의 주된 공적은 시조에서 이루어졌지만 서지학(書誌學)과 국문학 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 대표 작품

난초(蘭草) 四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굵은 대궁 하이한 꽃이 별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본디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하여,
정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두고,
미진(微塵)도 가까이 앓고 우로(雨露)받아 사느니라.

▷ 가람시비

1969년 전주 다가공원에 가람시비(詩碑)가 세워졌고 여산 남초등학교에도 시비가 세워져 '별'이 새겨져 있다.

바람이 소슬도 하여 뜰앞에 나섰더니
서산 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뉘 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 게오.
잠자코 호ؤل로 서서 별을 헤어 보노라

탁류와 태평천하의 작가 채만식

▷ 백룡 채만식(1902~1950)의 생애와 활동 사항



채만식은 1902년 전북 옥구에서 중농의 아들로 태어난다. 보통 학교를 거쳐 1918년 서울로 올라와 중앙고보를 나온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早稻田)대학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한다. 채만식은 학업에 열중하는 한편 축구 선수로 나서는 등 활기에 찬 대학 생활을 하지만, 관동 대지진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졸업을 포기하고 1923년 귀국한다. 귀국 뒤 '동아일보'에 입사한 그는 학예부 기자로 근무하며 1924년 『조선문단』에 단편 「세 길로」를 추천받아 등단한다. 이후 단편 소설을 비롯해 수필 · 희곡 ·

평론 등을 꾸준히 쓰지만 지면에 발표는 별로 하지 않다가 1930년에 접어들며 『별건곤(別乾坤)』에 단편 「병조와 영복이」, 희곡 「낙일(落日)」 등을 내놓아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벌인다. 이어 그는 1931년 『동광』에 희곡 「사라지는 그림자」, 『혜성』에 「화물 자동차」를, 1932년 『신동아』에 단편 「부춘」 등을 발표한다.

아이러니 · 기지 · 야유 · 조소 등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눈앞의 현실에 대한 허무 의식에서 싹터 사회의 부조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풍자 기법은 김유정 문학에 이어 채만식(蔡萬植, 1902~1950)의 「태평 천하(太平天下)」와 「탁류(濁流)」에 와서 극치를 이룬다. 평론가 김병익은 채만식에 대해 “경향 문학에 동조하되 결코 카프 조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프로 문학을 벗어나되 당대의 구조적인 모순의 현실에 정면으로 대결하며, 발랄한 풍자 정신으로 인간과 세태를 묘사하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통찰한 비판 정신을 잃지 않은 작가—채옹(采翁) 채만식은 「삼대」의 황보 염상섭과 함께 30년대 조선의 비극적인 상황을 가장 깊이 인식하고 근원적으로 비판하면서 ‘진보에의 신념’을 끝까지 감추지 못한 대기(大器)의 지성인이었다.”고 평가한다.

▷ 문학세계

1933년까지 발표한 여러 작품들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동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34년 이후 희곡 〈인텔리와 빈대떡〉(신동아, 1934. 4)과 자전적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신동아, 1934. 5~7)·〈치숙 痴叔〉(동아일보, 1938. 3. 7~14) 등과 같은 풍자적인 작품을 발표하면서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보여주어 한국문단에서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특히 〈레디메이드 인생〉은 일제강점기에 '직업 동냥'에 나선 지식인이 겪는 좌절과 그 현실을 풍자와 냉소로 제시하고 있고, 〈치숙〉에서는 부정되어야 할 인간형을 긍정하고 긍정되어야 할 인간형을 부정하여 풍자소설의 한 전형을 보여주었다. 또한 〈탁류 濁流〉(조선일보, 1937. 10. 12~1938. 5. 17)는 장편소설로서, 일제강점기에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미곡을 일본으로 반출하던 항구도시 군산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수난사를 그려냈다. '탁류'라는 제목에서도 암시하듯이 타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 위선·음모·살인이 횡행하는 1930년대 한국사회의 단면을 예리하게 해부한

작품이다.

대표작인 〈태평천하〉(조광, 1937. 1~9)의 원제목은 〈천하태평춘〉이며 윤씨의 5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룬 가족사 소설이다. 단순한 인물의 풍자가 아니라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현실을 '태평천하'로 믿는 고리대금업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시대의 암흑을 풍자한 작품이다. 〈탁류〉가 긍정적인 인물의 몰락과정을 보이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면, 〈태평천하〉는 부정적인 인물들의 몰락과정을 그리면서 마지막에 긍정적인 인물이 나타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리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반어·역설·비유 등을 사용해 매우 날카롭고 적절한 풍자를 보여준 작품이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라도 방언을 포함해 사투리와 우리 고유어를 풍부하게 구사한 것인데 그의 문체는 당대 소설가들 중에서도 일본문장이나 번역문투가 거의 배어 있지 않은 뛰어난 것이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설화체 문장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설화체 문장을 사용해 평면적인 이야기를 입체화하고 생동력 있게 만들었다. 지은이 스스로 〈자작안내 自作案內〉에서 "부정면을 통하여 기실 긍정면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듯이 부정적인 시대상황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방법을 끈질기게 추구했던 작가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소설집으로 〈탁류〉(1986)가 있고, 1989년 창작과비평사에서 〈채만식전집〉을 펴냈다.

「탁류」와 「태평 천하」

「탁류」는 근대 자본주의의 상징인 돈과 전통적 가부장 제도라는 모순의 틈바구니에서, 제목처럼 탁하고 어지러운 이 거대한 물결에 휩싸여 떠내려가는, 아니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불안과 절망을 그려낸 작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작가는 이 소설에서 남승재와 계봉이를 통해 '탁류'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선택적인 삶의 욕구를 대비시켜 어렴풋하게나마 앞날에 대한 희망도 예시하고 있다.

식민지 수탈을 위한 일제의 잉여 자본이 흘러드는 군산항을 배경으로 미두(米豆)라는 노름이 성행하던 시기, 군 서기 출신의 정 주사는 미두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다. 그는 여학교를 나와 약사가 될 날을 꿈꾸며 약국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던 만팔 초봉이를 은행원 고태수에게 시집 보내 덕을 보려 한다. 그러나 탐욕과 허위로 뭉친 고태수가 살해됨으로써 초봉이는 약국 주인 박재호와 동거 생활을 한다. 얼마 뒤 초봉이는 그에게서도 버림받고 나중에는 부를 쌓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고리 대금업자이자 꾀추인 형보에게 정신과 육체를 모두 유린당한다. 한편 예전에 초봉이를 사랑하던 남승재는 초봉이와 고태수 사이에 혼담이 오간 뒤 그 동생인 계봉이와 연인 사이가 된다. 남승재는 형보의 손아귀에서 초봉이를 구출하려 애쓰지만, 그 사이에 초봉이가 꾀추 장형보를 죽이고 만다.

채만식의 또다른 걸작 장편 「태평 천하」는 전환기에 등장한 새로운 계층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소설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돈의 가치를 신봉해 부를 쌓으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난날 권세를 부리던 전통적 지주의 삶을 동경, 돈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어 현재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려는 계층의 애기를 담아낸 것이다.

“우리만 빼놓고 모두 망해라.”는 식의 이기심을 가진 윤두섭은 일제 강점기를 오히려 조선이 발전을 거듭하는 태평 세월로 인식한다. 그는 약삭빠르게 격동기의 흐름을 파악해 가난한 소작인들을 등쳐먹는 고리 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한 뒤 ‘직원’이라는 벼슬을 산다. 그리고 나서 딸을 양반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가 하면, 손자 종수와 종학을 군수와 경찰 서장 자리에 앉혀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시집간 딸은 과부가 되고, 종수는 주색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며, 종학마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고 만다. 이로써 구한말 세대인 윤 직원부터 개화기 세대인 종수와 종학에 이르는 윤씨 일가는 서서히 몰락하게 된다.

작가 채만식은 이와 같은 줄거리를 당시의 풍속과 특유의 방언, 설화체, 아이러니 등을 총동원해 생동감 있게 엮어나간다. 이로써 그는 「탁류」에 이어 다시 한 번 풍자 작가의 기질을 발휘한다. 그러나 채만식의 이런 풍자를 통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폭로는 「탁류」에서와 마찬가지로 변죽만 울렸을 뿐 핵심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채만식은 거의 평생 동안 가난과 지병의 고통을 안은 채 창작 활동에 임한 불운한 작가다. 그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에서 10년 넘게 기자로 일하고, 잠시 사립 중학교 교사직을 거치기도 한다. 그러나 워낙 이재에 둔감한 탓에, 특히 전업 작가로 나선 뒤에는, 늘 쪼들리고 끼니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생활을 이어나간다. 당시 출판사들은 그렇잖아도 박한 원고료를 깎아내리기 일쑤였고, 그마저 제대로 지급하는 곳이 드물었다. 내성적이고 외곬이어서 소설 쓰는 일 말고는 다른 재주가 없던 그는 푼돈밖에 되지 않는 원고료와 금광을 경영하는 형과 친지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림을 꾸려간다. 이렇게 가난에 시달리던 채만식은 1950년 6월에 전북 이리에서 늑간 신경통과 노후성 폐결핵이 악화되어 쉰 살을 채우지 못한 채 숨을 거둔다.

2023 군산 역사 기행 활동지

1. 군산 개항, 전라북도의 문을 열다

고려시대 군산 인근의 금강 하구에는 전국 12조창¹⁾ 중 하나인 진성창이 있었다. 고려 말 최무선이 최초로 화포를 사용하여 왜구들을 소탕한 진포대첩(1380년)²⁾이 바로 군산 앞에서 벌어졌다. 조선시대에는 군사적 요충지로 군산진이 있었으며, 중종 때부터는 군산창이 설치되어 전라북도 일부의 세곡을 담당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인근 강경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활발하였다.

강화도조약(1876년) 이후 1899년 5월 군산은 마산, 성진과 함께 개항을 하였다. 개항 당시 군산은 4~5개의 작은 구릉에 70여 호의 가옥이 흩어져 있는 조용한 어촌이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군산을 개항하여 관세수입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겨 군산의 개항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개항될 무렵 군산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대형 선박의 출입이 곤란하여 대형항구로는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은 군산 개항에 적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군산 부근에 넓게 펼쳐진 옥구 · 김제 · 익산 · 부안 등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과 농산물을 일본으로 실어가는데 최적의 항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군산항 개항 직후 모습



▲1908년에 준공한 군산세관 모습



▲1920년대 군산내항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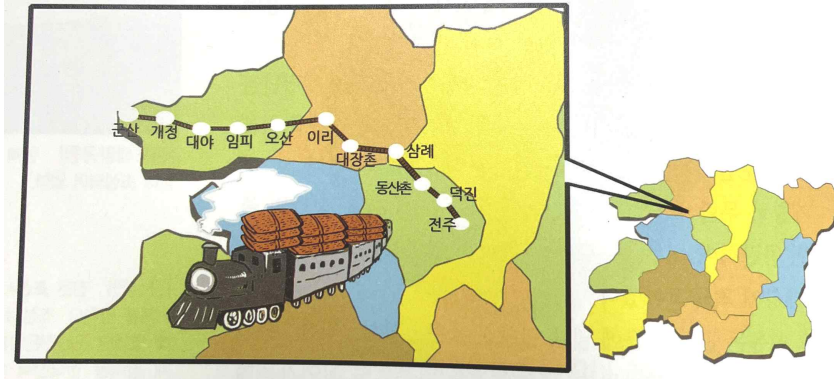


▲군산항에 쌓인 쌀더미

1) 고려 조선 시대에 세금을 모아 보관하고, 이를 다시 중앙에 수송하기 위해 강이나 바다 가까이에 설치한 창고 혹은 이 일을 담당하던 기관

2) 고려 말(1380) 진포(금강 하구)에 대규모로 침입해온 왜구를 물리친 전투

2. 밀려오는 일본인, 빠져나가는 쌀



▲전주-군산 철도



▲1926년 일제가 군산항 3차 축성 공사를 기념하기 위해 쌀 804가마니로 쌓아올린 탑

1912년 현재의 익산에서 군산까지 부설된 군산선은 이후 전주-익산 간 철도가 완공되면서 전주까지 연결되었다. 군산선을 운행한 열차는 증기기관, 비둘기, 통일호로 이름을 바꾸가며 개정역과 임피역, 오산역 등 전라북도 군산과 전주 사이의 간이역 3개를 포함해 12개역을 지나면서 통근 및 지역민의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군산선 통근열차는 2007년 12월 31일 10시 25분 마지막 열차를 끝으로 운영을 중단하였다.

일본인들은 군산 개항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토지를 사들였다. 이들은 러일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토지를 넓히기 시작하여 1910년에는 이미 24개의 일본인 농장이 만들어졌다. 일본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조선인 소작농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1930년경에는 전체 소작농가의 1/4 정도가 일본인의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다. 1899년 개항 당시 군산의 일본인은 77명(한국인의 13%)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늘어나 1910년에는 3,448명으로 한국인(3,830명)과 거의 같은 수에 달하였다.

3. 전라북도와 일본, 쌀의 길로 연결되다

1907년 일제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쉽게 가져가기 위하여 전주에서 군산까지 길이 46.7km, 폭 7m의 신작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 도로의 일부가 벚꽃으로 유명한 변영로(전군도로)이다.

1975년 전라북도 출신 재일교포들과 도민의 성금으로 도로 양쪽에 벚꽃을 심으면서 유명해졌으며 1977년 4차선 도로로 확장 건설되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변영로라 이름 지어졌다. 현재는 2002년 개봉한 전주-군산 산업도로가 주 교통로로 이용되어 변영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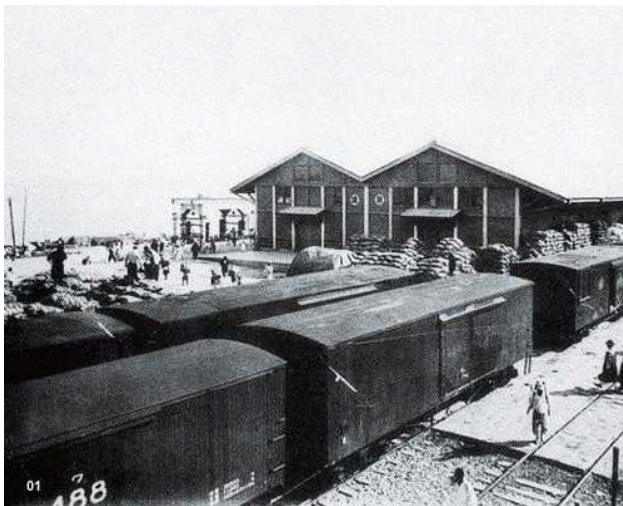
일제는 1912년 군산선을 건설하고 이후 전주-익산 사이의 철도를 완공하여 전주와 군산을 연결했다. 이때 설치된 역들이 동산촌, 삼례역, 대장촌, 이리역, 오산역, 임피역, 대야역, 개정역 등이다. 도로와 철도를 통해 군산에 모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일제는 군산항을 확장시켜 나갔다.

일제는 1905년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하여 군산항 인근을 매립하고 잔교를 설치하였다. 나라를

빼앗은 이후에는 군산항까지 철도와 도로를 연장하고 부산교(뚝다리)를 건설하여 24시간 끊임없이 일본으로 이어지는 수탈³⁾의 길을 완성하였다.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후 일본인들이 전라북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은행, 상점, 관공서, 학교 등의 근대적 시설들이 들어섰다. 군산은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도시로 변화하였고, 군산항을 통해 들어온 문물들은 쌀의 길을 거슬러 전라북도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많은 조선인들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일본인들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쌀을 바라보면서 식민지의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철도와 쌀 창고, 뚝다리가 연계된 1930년대 군산항



4. 전라북도 쌀, 일왕의 밥상에 오르다

지금은 익숙하지 않은 군산의 장미동, 미원동, 미장동, 미룡동, 미성동 등의 이름들에는 공통적으로 미(米, 쌀)자가 들어간다. 일제강점기 군산에 모여든 쌀과 관련된 시설이 군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동네 이름들이 지어졌다. 사이토 총독이 '쌀의 군산'이라 불렀을 만큼 군산항은 일제강점기 부산,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주요한 항구였다.

군산 주변 지역의 농토 가격은 일본의 1/10에 불과하였고, 반면에 수익률은 4배가 넘었다. 그 때문에 호남지방으로 일본인 농업 경영자가 몰려왔고, 쌀을 기반 산업으로 하는 정미업과 양조업이 초기 군산의 중심 산업으로 성행하였다.

1933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가져간 쌀의 1/5(약 200만 섬)이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쌀의 유출이 늘어나자 일제는 철도를 군산항까지 확장시키고 주변에는 쌀을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를 설치하였다. 이 창고들에는 최대 25만 가마를 보관할 수 있었다.

철도와 도로, 그리고 부산교를 통해 끊임없이 일본으로 실려 나간 전라북도 쌀은 일왕의 밥상에도 올랐다. 광활과 죽산, 임피 지역에서는 논에 철조망을 두르고 물도 따로 사용하는 험곡답에서 쌀을 생산하여 일왕에게 바쳤다. 군산은 쌀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부두노동자, 미선공, 토막민 등 다양한 삶이 펼쳐지는 도시로 변해갔다. 그러나

3) 강제로 빼앗음

이들 중의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며 화려한 도시의 뒤편에서 소외된 채 살아갔다. 일제의 쌀 공장이었음에도 전라북도 토막민 비율이 전국 2위였으며, 전라북도 토막민의 80%가 '쌀의 군산'에 살고 있었다. 늘어난 쌀과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모두에게 축복은 아니었다.

▶ 읽기자료, 채만식의 『탁류』

날이 한가한 것과는 판판으로, 선창은 분주하다. 크고 작은 목선들이 저마다 높고 낮은 돛대를 웅궁궁 구 떠받고 물이 안보이게 선창가로 뽀뽀이 돌이 밀렸다. 배마다 셈 세는 소리가 아니면 댕 감는 소리로 사공들이 아우성을 친다. 지게 진 짐꾼들과 광주리를 인 아낙네들이 장속같이 분주하다.

형보가 아랫목에서 제풀에 급사춤을 준다. 형보의 뒹으로 기생 하나를 더 불러, 네 남녀가 탄 자동차는 길로 먼지를 하나 가득 풍기면서 공원 밑 터널을 빠져 '불이농촌' 앞을 달린다.

개복동, 구복동, 둔벵이 그리고 이편으로 뚝 떨어져 정거장 뒤에 있는 스레(京捕理) 이러한 몇 곳이 군산의 인구 칠만 가운데 육만도 넘는 조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깨를 비비면서 움닥움닥 모여 사는 곳이다. 면적으로 치면 군산부의 몇 십 분지의 일도 못되는 땅이다. 한 세기라니 인제 한 세기가 지난 뒤라도 이 사람들이 제법 고만큰이나 문화다운 살림을 하게 되리라 싶지 않다.



▲이영춘 가옥(군산시 개정동 4)

일본인 농장주 구마모토 리헤이의 저택으로 1920년대 건립된 건물이다. 도쿄와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던 구마모토는 자신의 농장에 이 가옥을 지은 후 일 년에 두세 차례 농장을 방문할 때 별장처럼 사용하였다. 서구식, 한식, 일식의 건축 양식이 합쳐진 건물로 구마모토 농장 내 자혜진료소 의사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 개정병원을 설립한 이영춘 박사가 거주하였기에 '이영춘 가옥'이라고도 불린다.



▲콩나물고개위의 토막집

토막집이란 일제강점기 조선인 도시빈민들이 산등성이에 만든 초가집 형태의 주거지를 말한다. 땅을 파고 가마니로 지붕을 만든 형태인데 청동기시대 반지하 주거 형태와 비슷한 모습이다. 군산의 토막민들은 둔율동, 월명동, 개복동, 창성동의 산비탈에 토막집을 짓고, 남자는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하고 여자는 식모살이와 미선공을 하여 하루하루 힘들게 생계를 이어갔다.

1945년 미국에서 건조되어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상륙작전에 참전한 군함이다.

□ 시설안내		
대지면적 8,347㎡ 건축면적 4,248㎡ 건물규모 지하 1층/지상 4층 주요시설		
	로 비	어청도 등대
1F	해 양 물 류	종합영상실, 삶과 문화, 해상유통의 중심지
	역 사 관	해상유통의 전성기, 근· 현대의 무역, 바다와 문화
	어린이박물관	바다여행, 바닷가 친구들, 바다도시 군산
2F	특별 전시 관	기증자 전시실, 독립영웅관
	근대규장각실	근대사관련 자료실
3F	근대 생활 관	근대도시, 탁류의 시대, 다양한 체험공간
	기획 전시 실	분가별 테마전시

3. 군산 근대미술관

옛 일본 18은행 군산지점(군산 근대미술관)은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본사를 두고 있던 은행으로, 숫자 18은 은행 설립인가 순서를 의미한다. 군산지점은 조선에서 7번째 지점으로 1907년에 설립되었다. 군산의 제18은행은 무역에 따른 대부업을 주로 하였다. 초기에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토지를 담보로 높은 이자를 받았고, 제때 갚지 못한 경우에는 경지를 빼앗기도 하였다. 2008년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 군산 근대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 탐구 채만식의 소설 탁류에 등장하는 미두장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옛 조선은행 앞 대로변에 있던 미두장 일종의 증권거래소로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운영되었다.

군산의 미두장을 배경으로 한 채만식의 소설 탁류가 보여주려고 한 것은 일제 강점기의 혼탁한 사회 모습이다. 이 소설은 식민지 경제 수탈이란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끝내 살인자가 된 정주사의 딸 초봉의 삶을 통해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일제가 군산에 미두장을 설치한 것은 호남의 농촌 자본을 노리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다. 미두장의 원래 명칭은 미곡취인소이다. 이곳은 쌀과 콩 등을 거래하는 곳으로, 현물은 거래되지 않고 시세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곡물을 사고파는 장소였다.

당시 군산의 미두장은 조선 쌀의 최대 소비 시장이었던 일본 오사카의 도지마취인소에서 가격을 전보로 받아 쌀값을 정하였는데, 100석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쌀값의 10%만 있으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쌀값은 오전에 10회, 오후에 7회 시세 변동을 알리는 딱딱이 소리와 함께 전해졌다.

이곳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충청도와 전라도 갑부들이 주로 모여들었지만, 일본인에 비해 자금과 정보가 부족하여 대부분이 돈을 잃고 절치기(하바꾼)로 전락하였다. 절치기란 밀전이 없어 미두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미두장 바깥을 서성이며 수시로 변하는 쌀값 시세를 알아맞히기 내기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설 탁류에서는 주인공인 초봉의 아버지 정주사가 이곳에서 돈을 모두 잃고 절치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4. 진포해양테마공원



세계 최초의 함포 해전으로 기록되는 진포대첩의 역사적 현장으로 고려말 최무선 장군이 왜선 500여척을 패퇴시킨 전적지 내항에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의 퇴역 군·경 장비(13종 16대)를 전시하고 있다. 그 중 주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봉함은 1945년 미국에서 건조되어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상륙작전에 참전한 군함이다. 우리나라는 이 배를 1959년 미국으로부터 인수

하여 1965년 월남전의 백구부대 일원으로 전투에 투입하였다. 위봉함은 지난 48년간 전투임무와 해군 사관생도 및 해군 장병의 훈련 및 실습활동 지원을 통해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2006년 12월 31일에 명예롭게 퇴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부잔교(뜯다리)

일제시대 수탈과 병참 기지화를 위해 조수간만의 차의 극복을 위해 설치물 수위에 따라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 뜯다리부두라고도 한다. 군산내항은 금강 하구와 중부 서해안에 자리한 지리적 특징으로 고려 때는 진성창이 자리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철읍해창이 운영되던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해상교통로의 역할을 염두한 일본은 1899년 군산이 각국 조계 지역으로 개항된 후 군산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1905년 제1차 축항 공사를 시작으로 1921년까지 많은 공사를 통해 연 80만 톤에 달하는 수출입화물 하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부잔교는 물 수위에 따라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 뜯다리 부두라고도 하며 1918년~1921년, 1933년 준공되었다고 한다.



※자료 출처

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
2. 전라북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2015
3. 씨마스, 『함께 걸으며 생각하는 우리 지역사』, 2019

**가람의 시조와 채만식의 소설’ 세계를 읽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찾아 역사의식을 바로 세운다**

학번/이름

학번() 이름()

기행 참가 활동 메모

✓

✓

사후 활동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는 감상

나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내가 관심을 가진 이유 또는 나의 관점)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 강조하여 기록하고 싶은 내용(기록 희망 : 자율활동 / 진로활동 / 개인 세특)